

HOME > 지역 > 원주

농어촌공사 원주지사 '풍년기원' 반계저수지 통수식

✎ 이기영 | ⓒ 승인 2026.04.13 | □ 10면

농업용수 공급 본격화



▲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는 10일 강원본부 풍년기원 통수식을 갖고 한 해 풍년을 기원했다.

강원지역 농업용수 공급의 시작을 알리는 풍년기원 통수식이 올해 원주에서 열렸다.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는 10일 문막읍 반계저수지에서 하태선 공사 농어촌계획 이사, 김명일 공사 강원본부장, 곽후신 문막농협 조합장, 김인식 농촌지도자 시 연합회장, 농업인단체장,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본부 풍년기원 통수식을 개최했다. 통수식은 모내

기 시기에 맞춰 저수지 수문을 열고 농업용수를 방류하며 한 해 풍년을 기원하는 행사다. 강원도는 매년 5개 지사에서 기후 여건을 반영해 대상 저수지를 선정, 통수식을 개최하고 있다. 행사는 풍물놀이를 시작으로 올해 급수계획 발표, 저수지 수문 개방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원주지사는 원주 지역 저수지 16곳 수문을 일제히 개방해 농업용수 공급을 시작했다.

남기두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장은 “기후변화 등으로 농업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지만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을 통해 농업인 사기를 높이고 풍년 농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기영 기자



이기영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